

# 상생출발 GGM...노사 갈등 결과 전국 경제계 '주목'

### 주주단 '구성원들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준수' 지역경제 생각해야 무노조·무파업은 지역민과의 약속...노·사·민·정 함께 설득 논의

노·사·민·정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존립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 경제계가 이번 갈등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을 위해 임금을 낮추고, 주거·육아 등 복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3년여 만에 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결성되는 등 당초 GGM 출범의 근간이 되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자칫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GGM이 실패할 경우 광주의 향후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활동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결성에 위탁물량 축소...지역 청년 채용 물 거품=26일 GGM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은 5만3000대(내연차 3만1200대·전기차 2만1800대)다. 그러나 캐스퍼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고 올 하반기 해외수출이 시작됐음에도 내년도 위탁 물량은 올해보다 7.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내년도 GGM에 5만6800대 물량을 맡

길 계획인데, 이 중 내연차는 올해보다 70% 줄어든 9100대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내수 대수도 57.1% 줄어든 4800대 수준이다.

현재 캐스퍼 전기차 대기 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물량을 늘릴 여지가 분명하지만, 현대차가 GGM 내 노동조합 이슈로 수탁물량을 줄였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협정서에 적시된 대로 35만대 생산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GGM 노동조합은 자가량장에 빠진 셈이다.

GGM 노조의 자가량장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채용 문도 좁아졌다. 현 GGM 구성원은 680여명으로, GGM은 위탁물량 증가에 따른 2교대 근무(근무인원 1000명)를 고려했지만, 노조 결성으로 물 거품이 됐다. 노동조합이 결국 최대 300여명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셈이다.

◇차입금 2800억원-연간 금융비용만 450억원=GGM은 출범 당시 지역 37개 주주로부터 2300억원을 출자 받았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광주은행으

로부터 2800억원을 차입했다. 지난해 GGM의 매출액은 1065억원, 이 가운데 대출원금 상환에 280억원, 이자 상환에 171억원 등 금융비용으로만 약 450억원이 들어갔다.

현재 남은 차입금만 2100억원에 이른다. 이 대출 또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조건으로 했으며, 올 6월 채권단은 차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추후 추가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다.

투자기업들도 마찬가지다. GGM 주주단은 이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우려하며 노조가 파업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GGM '노·사·민·정' 설득 나서야='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른 GGM의 무노조 무파업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GGM 노동조합이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성한 자세를 취하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노·사·민·정이 나서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GGM 탄성에 '산파'

역할을 한 노·사·민·정만이 GGM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GGM 노조는 "무늬만 노사상생협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GGM 창립 당시 사측과 노동자간 맺은 노사상생협정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노조는 협정서 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월 교섭결렬 선언 이후 조정회의에 돌입했고 19일 첫 번째 조정과 23일 2차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임금인상·노조 활동 정책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급여 15만9200원 인상과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가상승분에 대한 인상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 중기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공수처, 尹에 29일 3차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전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과거 출석요구서와 같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두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당일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출석요구서도 전과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내란범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우선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태, 이상윤, 전현희, 김승원, 박군택 의원. /연합뉴스

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체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가능한 수사기한과 특검출범 가능성도 염두해 3차 출석요구를 한 것이냐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기한은 공수처와 검찰을 합산해 20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까지 특검이 출범을 하게 돼

공수처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차 불출석 이후 3일 뒤인 29일자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미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 복원해야"

### 광주·전남 언론인회 촉구

광주·전남 퇴직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2층에 있던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언론인회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 있던 '계엄사령부 전남북계엄본소 보도검열관실'을 본관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검열관실은 옛 전남도청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1979년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1981년 1월 24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됐다. 당시 계엄군들은 광주·전남지역 신문·방송·잡지 등 모든 홍보 매체를 검열하고 기사를 축소·삭제해 사실 보도를 통제했다.

언론인회는 "옛 전남도청 복원이 추진되자 복원 추진단 초대 단장에게 보도 검열관실을 복원해달

라고 요청했고, 추진하겠다는 응답도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문체부가 별관 1~2층을 통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도검열관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1980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복원 역사실과 건축 역사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퇴직 언론인들은 "보도 검열"은 총을 쏘지 않았을 뿐 군사적 위협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사실 보도를 막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악랄한 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라며 "그런 행위가 자행된 전남도청 내 공간을 복원하고 만행을 전시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계엄'과 계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보도검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줬다"며 "지금까지 복원 과정에 대한 반성큰earing 미래를 잊지 못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순천·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3년간 200억씩 투입

전남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26일 지역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선정했다. 선정 도시에는 향후 3년간 조성사업 예산 20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산업 자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도시'에 선정된 순천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새롭고 세련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콘텐츠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다.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도약을 도모하는 도시'에 지정된 진도군은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씻김굿과 강강술래, 다시래기 등 민속문화자원을 토대로 민속문화 교육·창작·유통·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듀스 진도', 원도심 내 민속문화 융복합 다기능 프로그램인 '진도삼락살롱' 등을 개설해 진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지(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축적 등 각종채권상담

kwangju.co.kr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12월 0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23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병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6, 4층 (지평동)  
청산인 조 성 래

###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방 임복(510505-1XXXXXX)  
최후주속: 광주 서양대 319-10(유산물)  
피상속인 방 임복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12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27일  
상속인 1. 이만옥(560601-2XXXXXX)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21번길 7, 2층 202호 (삼우빌5차)  
2. 임정희(70726-2XXXXXX)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13번길 14, 101동 801호 (조암기산비바)  
3. 임재현(820424-1XXXXXX)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21번길 7, 2층 102호 (삼우빌5차)  
4. 임유진(841002-1XXXXXX)  
강릉시 주문진읍 시장길 2층 2호

· 신고기간: 2024. 12. 27. ~ 2025. 3. 8.  
· 채권신고처: 상속인 1. 이만옥의 주소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최병지(480429-1XXXXXX)  
· 최후주속: 전남 무안군 문탄면 신화동길 8-3(하산리)  
피상속인 방 최병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청 2024년 12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27일  
· 상속인: 최수영(790827-1XXXXXX)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66, 213동 1001호(중흥에스-클래스2단지)  
· 신고기간: 2024. 12. 27. ~ 2025. 3. 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최수영의 주소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대  
북 구: 동 266-1920, 문 266-1960, 북 525-3761, 신 222-8171, 광 571-7658, 오 286-7801, 용 433-1503, 동 433-1503  
동 구: 남 673-6836, 동 222-9054, 동 225-8001, 중 222-9054, 중 222-8171  
남 구: 남 673-6836, 북 651-1833, 북 673-6836, 송 675-6605, 진 671-7276  
서 구: 광 382-5788, 상 372-2352, 서 369-1625, 문 376-7153, 치 376-6511, 용 603-0311, 화 369-1625  
광산구: 문 952-1687, 월 959-1920, 청 973-2900, 하 955-0451, 광 944-0444